‘사룟값 폭등’ 축산농 시름 덜기…나주시 조사료 생산 확대

올 생산 면적 3800ha까지 늘리고 2026년까지 운송비 등 46억 지원

연간 필요량 16만t…41% 불과한 자급 충당률 60%까지 끌어올리기

나주시가 사룟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시름을 덜고 명품 한우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도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에 힘쓰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해 9~10월께 파종한 동계조사료를 오는 6월까지 집중적으로 수확한다고 밝혔다.

조사료 수확은 나주시가 지원하는 농업 경영체 법인 52곳을 중심으로 내달 초까지 이뤄진다.

대표적인 동계 사료작물이자 칼로리가 높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를 수확해 곤포 사일리지로 가공한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조사료 전문(특화)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공산중포영농조합법인이 선정돼 국·도비 8억9000만원을 확보했었다.

여기에 2024년부터 3년간 시비 21억원을 투입해 조사료 생산 면적 확대와 조사료 가공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

나주시는 2022년 조사료 파종 면적을 3100ha에서 2023년 3300ha로 확대한 가운데 올해는 생산 면적을 3800ha까지 넓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말 기준 나주지역 한·육우, 젖소 사육 규모가 1615농가, 6만5000여마리에 연간 조사료 필요량이 16만t에 달한 것으로 파악돼서다.

하지만 전체 필요량의 약 41%만 라이그라스, 수단 등 동·하계 사료작물로 충당하고 있어서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통해 자급률을 60%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나주시는 이를 위해 올해 조사료 사일리지 생산에 필요한 결속기 등 기계·장비 10대 도입에 2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또 오는 2026년까지 조사료 제조 비용과 운송비로 46억원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축산 농가 경영 안정이 기대된다.

여기에 고품질 동계조사료 생산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7억원을 투입해 등급제를 추진한다.

한편 전국 최대의 조사료 산지인 전남에서 나주지역 조사료 재배면적은 3800ha, 볏짚은 6000ha로 도내 약 10%를 차지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불안정한 한우 가격에 비해 사룟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나주시는 고품질 조사료 생산 확대를 통해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지역 조사료 생산단지 모습.

함평읍 관통하는 함평천,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친수시설 등 중장기 개발계획 구축

함평군이 함평천을 또 하나의 지역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함평군은 함평천을 명품 하천으로 조성하고 주변 유휴 부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함평천권역 종합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용역을 이달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함평천은 함평읍 도심을 관통하는 지역 대표 하천으로, 오랜 기간 지역 주민과 고락을 함께해 온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자연 자산이다.

최근 여가·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하천의 기능이 치수(治水)와 이수(利水)를 넘어 친수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함평천에는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친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함평군은 마스터플랜을 통해 고수부지, 하중도 등 하천부지를 활용해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함평천 주변 유휴부지에 대한 중장기 개발 계획도 세울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함평나비대축제,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 지역 축제와 연계를 통해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생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함평천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개발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함평군이 함평천을 지역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함평천 일원. 〈함평군 제공〉

장성군, 고향사랑기부 최고액 기부자 나왔다

변화순 해천케미칼 대표 2000만원

장성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개인 한도 최고액 2000만원 1호 기부자가 나왔다.

장성군은 최근 변화순 ㈜해천케미칼 대표(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가 개인 최고액 기부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장성 북일면 출신인 변 회장은 작은 회사의 경리로 시작해 ㈜해천케미칼 대표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2001년부터 24년째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현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을 맡아 여성경제인의 성장을 돕고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변 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향 장성의 성장에 일조하게 돼 뜻깊다”면서 “고향에 힘을 보태는 기부의 손길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변 회장이 기탁한 기부금을 고향 장성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변화순(오른쪽) ㈜해천케미칼 대표(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와 김한종 장성군수.

장성 23개 초·중·고 국제환경교육재단 ‘에코스쿨’ 인증

산림교육 조례 지속적 환경교육

장성 지역 23개 초·중·고등학교가 국제환경교육재단(FEE)으로부터 ‘에코스쿨’ 인증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장성군은 최근 장성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3개 학교에 대한 ‘에코스쿨 인증서’ 수여식을 갖고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에코스쿨’은 국제환경교육재단이 전 세계적으로 인증하는 친환경 학교 프로그램이다. 사단법인 편백나무숲(대표 김진환)이 주축이 되어 부존자원인 편백을 활용해 맹지나 유휴지에 심고 가꾸거나, 버려지는 부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업사이클링을 하기도 한다.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식생활 교육 실천도 포함된다. 군은 지난 2023년 12월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이 발의한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를 계기로 지난 한 해 동안 23개 학교와 함께 본격적인 환경교육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국제본부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아내는 성과를 이뤘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지난 1년간 지속적인 환경교육과 에코스쿨 인증을 통해 학생들이 환경을 생각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성군이 국제환경교육재단으로부터 숲에 가치를 전달하는 1호 숲배움터 인증을 받은데 이어 관내 23개 학교가 동시에 에코스쿨 인증을 받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장성군은 이번 수여식을 계기로 에코스쿨 프로그램을 25개 학교로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환경 교육을 전남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은 최근 관내 23개 학교를 대상으로 국제환경교육재단 ‘에코스쿨’ 인증 수여식을 가졌다.

화순군 소수국 출신 결혼이민가족 통·번역 지원

태국·몽골 등 이민여성 3명과 계약

화순군이 소수국가 결혼이민 가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번역 지원사업에 나선다.

화순군은 이를 위해 태국·몽골·우즈베키스탄 출신 결혼이민여성 3명과 통·번역 지원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 체결로 태국과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신 결혼이민 가족들이 지자체 행정업무나 학교 상담 등을 펼칠 때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수국가 출신 이민가족이 위기상황 대처나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군은 지난 2023년부터 베트남·중국·일본·필리핀·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자국민 전담 다문화팀을 운영하고 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흥 중2 학생 219명 해외 한국역사문화탐방

장흥 지역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중국을 찾아 ‘2025 해외 한국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가 장흥교육지원청과 함께 추진 이번 프로그램은 각 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5월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해외 한국역사문화 탐방은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와 전라남도교육청이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여 추진하며, 지역 중학교 2학년 전체 219명이 참여한다.

학생들은 총 5개 그룹으로 나뉘어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상해에 위치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지인 매헌기념관을 방문해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항일 독립운동의 유적지 등을 탐방하게 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해외 역사탐방은 학생들이 선열들의 희생과 나라 사랑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어질 탐방도 안전하고 교육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담양군 청년 공직자 ‘혁신 주니어보드’ 출범

담양군은 지난 13일 군청 면앙정실에서 정철원 군수와 청년 공직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했다. 〈담양군 제공〉

담양 청년 공직자들이 행정혁신에 앞장선다.

담양군은 최근 정철원 군수와 청년 공직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했다.

‘혁신 주니어보드’는 근무 경력 7년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된 내부 혁신 그룹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부서 간 협업 강화 ▲조직문화 개선 등을 위한 아이디어를 자율적으로 발굴·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2기는 총 8개 팀 4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아름다운 담양 만들기’를 주제로 조경·야경·환경 등 다양한 생활행정 분야에서 팀별 연구 활동을 추진한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혁신 주니어보드는 군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변화의 출발점이다”며 “청년 공직자들의 창의적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화순경찰, ‘찾아가는 다문화 가정 범죄예방교육’

화순경찰(서장 장승명)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2일 화순군가족센터와 함께 외국인 대상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화순군가족센터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범죄예방 교실’은 한국어 교육을 수강 중인 결혼이주여성 3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증가하는 가정폭력·성범죄·스토킹 등 범죄 예방을 위해 실제 사례와 신고방법 등을 안내했다.

특히 범죄 발생 때 언어장벽으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14개 언어별로 번역된 ‘생활 속 범죄예방과 대응요령 및 도움요청 전화번호’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가 부착된 홍보물품을 배부해 언제든지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장승명 화순경찰서장은 “지역에 체류·정착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